



좋은 친구

FRIENDS

2020. 1

Vol.008

사단법인 프렌즈는 2006년 오륜교회의 뜻있는 분들이 심은 작은 씨앗으로 시작되어, 현재의 국제구호개발NGO로 성장하였습니다. 외교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현재 지구촌 15개국 30개 사업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표지이야기]



인도네시아 숭바섬에 살고 있는 10살 안드레아스.
5살에 발병된 암으로 오른쪽 눈을 제거했었는데, 특수안경으로 함몰된 부분이 예쁘게 채워졌어요.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드레아스는 참 신이 납니다!

반기간 <좋은친구 FRIENDS> vol.008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발행정보 제8호
발행일 2020년 1월 31일
발행인 김은호
기획편집 (사)프렌즈 대외협력팀
주소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89 금성빌딩 2층
전화 02-483-5007
E-MAIL friends@hifriends.or.kr
Facebook hifriends153 / 검색 '사단법인프렌즈'

사단법인 프렌즈 이사장 김은호(오륜교회 담임목사)

이사 김명진(크리스탈치과 원장), 김정섭(주식회사 토비아스 이사), 배영미(전 오륜여성교회 회장), 신현수(코모 키이비인후과 원장), 윤승철(시카고치과 원장), 이갑우(전 르호봇그룹 회장), 황한호(전 오륜교육자선교회 회장)
감사 마철현(세무법인 민화 대표 세무사) *이사장 이하 가나다 순

2019년 7월 1일 ~ 12월 31일 신규 후원자분들입니다.

개인 강인한 김미정 김재호 김현복 박봉준 박성훈(손아현) 박종영 박혜성 박희성 성병환 송이진 신창원(정길순) 안수진 유성희 윤미경 이도훈 이미선 이미영 이미현 이민정(강소울 강채울) 이영민(변정숙) 이의순 이임순 이재일 (이정주) 이주현 이준 이지숙 이한빛 장보경 장은주 장재현 전해진 정영해 정찬원 천혜선 최수정 한희정
단체 롯데비피화학(주) ㈜보령바이오파마 (주)신한은행 (주)에이원팜 연세84 (주)엔제이샤인 (주)주요커피레이션 철암 교회아동부 (주)KT&G 현동식

프렌즈의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ONTENTS

- 05 인사말
김은호 (사)프렌즈 이사장
- 06 현장이야기 '하나'
사랑을 먹고 있어요
- 08 인터뷰1
희망을 찾고 미래를 발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 10 현장이야기 '둘'
커피와 함께 자라는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꿈
- 12 인터뷰2
강동구립길리청소년지역아동센터 어벤져스 3인과 함께
- 15 현장이야기 '셋'
안드레아스를 위하여 '그 후'
- 18 후원자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걸음 <연세84 '1m×1원'>
- 20 핸드온소식
핸즈온 닉우스
- 22 프렌즈 News
2019 프렌즈 하반기



안녕하세요, 프렌즈 이사장 김은호입니다.

희망찬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번 맞는 새해지만, 그때마다 항상 가슴이 벅차오르는 건 또 한 해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바로 “꿈” 때문입니다.

프렌즈도 꿈을 꿈니다.

국경을 넘어, 인종을 넘어 모두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는 그런 꿈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손을 잡아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는 것,

그것이 프렌즈가 존재하는 이유요 행복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위해,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고민하고, 연구하며, 뜨거운 가슴과 사랑으로 해야 할 일을 하는 프렌즈가 되겠습니다.

프렌즈가 전하는 모든 희망과 위로는 후원자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들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꿈을 이룬 우리 이웃들의 기쁜 소식과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느니라” (잠언 17:17)

사단법인 프렌즈 이사장 *김은호*





사랑을 먹고 있어요

라오스 북부 산악지대에 있는 우돔싸이는 분지 지역으로 주민의 90%가 해발 1,000~2,000m의 높은 지대에 터전을 잡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산에서 농사를 지어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도로 환경도 열악해 높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와 교사를 만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 9월, 교육부의 제안을 받아 '프런밋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프런밋 학교는 유치원 과정부터 중, 고등과정까지 모두 160여 명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라오스 학교의 점심시간은 두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학생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점심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온 아이들은 점심은 커녕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는 상황이라, 학교 수돗물로 허기를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내에서 사는 아이들 또한 부모님이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우고 일하는 동안 직접 밥을 지어 먹고 학교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30도가 넘는 찜찜한 태양 아래, 험한 산길을 통해 학교와 집을 오가다보니, 점심시간이 지나면 체력적으로 지치는 아이들이 많아 오후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급식으로 결정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식단을 만들고, 매일 조리하여 영양가 있는 점심을 마련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이 많아 누구도 제외할 수 없기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통한 변화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두 시간이었던 점심시간이 한 시간으로 충분하게 되었고, 남은 한 시간동안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특별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점심을 굶어야 했던 아이들이 영양가가 높은 식단으로 식사를 하게 되니 더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걸어 멀리 떨어진 집에 다녀왔던 아이들도 지치지 않고 오후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급식사업'은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지만, 한번 시작하면 쉽게 중단할 수 없고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프런밋학교가 있는 지역처럼 학교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지역은 더욱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사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지 아이들의 건강만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세대의 건강을 돌보는 일은, 그들의 꿈을 돌보는 것이고, 그들이 속한 사회의 미래를 돌보는 것이며, 그들이 부모세대가 되었을 때 더 건강한 삶과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맛있는 식사를 먹으며 행복해할 때 저희도 함께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프린즈에서는 라오스 프런밋학교 급식사업을 위해 연간 2천만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식사와 꿈을 위해 후원해 주실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희망을 찾고 미래를 발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 우간다 리서치팀

프렌즈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해외리서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수집을 넘어, 지역의 욕구와 네트워크, 사업 아이템을 탐색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현지 주민의 시각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데요, 프렌즈 해외리서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우간다의 떠오르는 셋별 두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자기 소개를 해주세요

무기사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나라 우간다에서 온 “무기사 가드”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대학교 때 CCCI에서 7년 동안 스텝으로 활동했고요, 케냐, 남수단,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스와힐리어와 영어 등 7개 국어를 원활히 구사할 수 있습니다.

로나 제 이름은 아인바바키 로나입니다. 무기사처럼 우간다 사람이고요. 총신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우간다 현지NGO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인식교육을 실시하고요, 교육 환경을 개선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성교육을 진행하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제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에도 관심이 많아서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도운 바 있습니다. 한국 NGO에 대해서도 평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프렌즈에서 맡게 된 프로젝트에도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프렌즈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무기사 친구(friends)를 통해 친구(FRIENDS)를 알게 되었어요. 하하. 제 친구가 프렌즈 후원자이면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프렌즈에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와 로나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마침 프렌즈에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프렌즈에도 필요했던 해외리서치 프로젝트를 제안해 주셔서, 리서치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었죠. 그 때부터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해외 리서치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로나 저와 무기사는 우간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그곳에서 활동하는 NGO에 대해 리서치하고 있어요.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조사하고요. 최근에는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한 직업훈련학교를 세워 자립을 돕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어서 기획하고 있어요.

무기사 맞아요. 우간다에 대한 리서치를 하면서, 프렌즈가 NGO로서 우간다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도 리서치를 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었고,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 고용되거나 자영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훈련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외 리서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떨 때 보람을 느끼나요?

무기사 저희가 진행하는 리서치의 목적은 해당 국가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프렌즈가 NGO로서 활동 영역을 넓힐 때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의사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로나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개인이나 공동체가 가진 문제점에 대하여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의 리서치 기술도 향상되었어요~

해결이 필요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합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가능한 해결책들을 제시하려고요. 그 과정에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개인과 공동체에게 더 나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뻐요.

무기사 저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웃들을 발견했을 때, 사랑의 씨앗이 그들에게 뿌려지고, 눈물을 닦아주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들은 프렌즈와 같은 팀으로서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 소외된 이웃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렌즈가 진행하는 사업 중 관심 있는 분야가 있나요?

로나 교육과 멘토링을 통하여 취약한 계층과 청년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무기사 저는 아동결연(CDP)에도 관심 있고요, 지역사회와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를 건축하고 교육을 하는 등의 인적자원개발에 특히 관심이 있습니다. 우간다에 사회복지 시설과 IT센터가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을 남겨 주세요.

무기사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리는 자연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나일강의 근원으로 알려진 빅토리아 호수도 있고요. 청년세대가 많은 젊은 국가예요. 에너지가 넘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회에 도전할 준비가 된 청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간다를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로나 저와 무기사는 정말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생으로서 계속 공부를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프렌즈의 장학금으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유학생들을 위해서도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유학생 장학사업을 소개합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외국인 유학생 장학사업으로 현재까지 약 50여 명의 장학생이 배출되었으며, 2019년에는 5개국 15 명의 학생을 후원하였습니다.

가진 문제점에 대하여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커피와 함께 자라는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꿈

기적의 콩, 커피

눈이 감기는 아침, 나른해지는 오후... 코를 간지럽히는 검은 향. 따뜻한 연기와 감미로운 신 맛이 혀를 감싸올 때, 카페인에 반응하듯 따뜻한 혈액이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피로감이 지배하던 정신이 또렷해지며 다시 힘을 내게 해주는, 에티오피아 어느 양치기 소년이 발견한, 염소를 चु추게 한 붉은 열매! 바로 커피입니다.

출근길에 아메리카노 한 잔 손에 들고 걸어가는 직장인들, 길거리에 많은 카페가 있고, 그마저 식사시간 이후에는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커피.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원두가 생산되지 못한다는 거 아시나요? 커피나무는 적도 인근 기후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에는 맞지 않아, 생산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매일 같이 소비되고 있는 이 많은 원두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인도네시아, 커피 생두 원산지

커피하면 떠오르는 곳은 많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도네시아'는 품종이 다양하면서 좋은 커피가 생산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커피 열매를 먹은 사향고양이의 배설물에서 추출한 커피 루왁(시벳 커피)로도 유명하죠. 그러나, 훌륭한 커피 산지로서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인도네시아는 아직 커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유통 등 커피산업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커피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커피 산업의 확대를 원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필요에 맞춰, 프렌즈는 KT&G의 후원으로 '인니 청년들을 위한 커피 직업 훈련학교'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동남아시아 주요 커피 산지'라는 지역적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커피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커피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정부의 국가개발전략에 따른 대형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SCA(Specialty Coffee Association)라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커피 전문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가 양성, 인도네시아 상황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개발된 커리큘럼을 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채택해 직업훈련학교에서 인도네시아 청년들을 커피전문가로 양성하는 것, 그리고 이 과목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확보하고자 직업학교 교사들을 커피 전문가로 훈련시키는 과정 역시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SCA 자격증을 갖춘 강사들에 의해 실습공간이 마련된 커피랩에서 전문 교육이 이뤄지게 되면, 인도네시아 국가 산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의 취업과 자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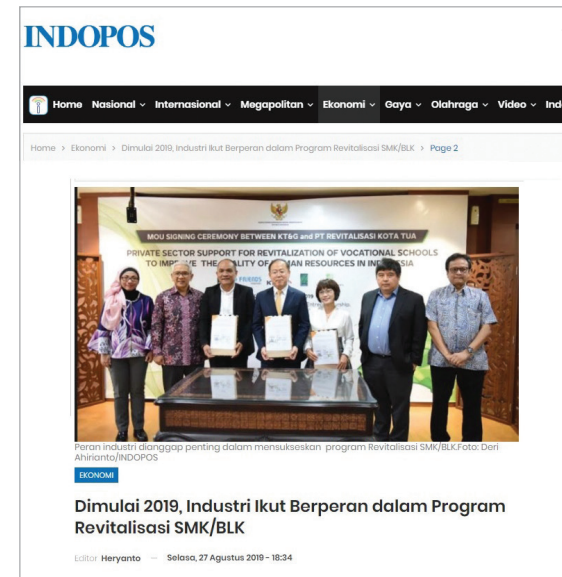
프렌즈, 인도네시아에 가다

2019년 8월 27일 프렌즈는 KT&G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있는 커피 랩(Coffee Lab)을 방문했습니다. 커피 랩에서는 SCA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을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판중사리 직업학교 선생님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현지에서 커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RKTJ (REVITALISASI KOTA TUA JAKARTA) 기관과도 MOU를 맺었습니다. 커피의 본향에서 향기로운 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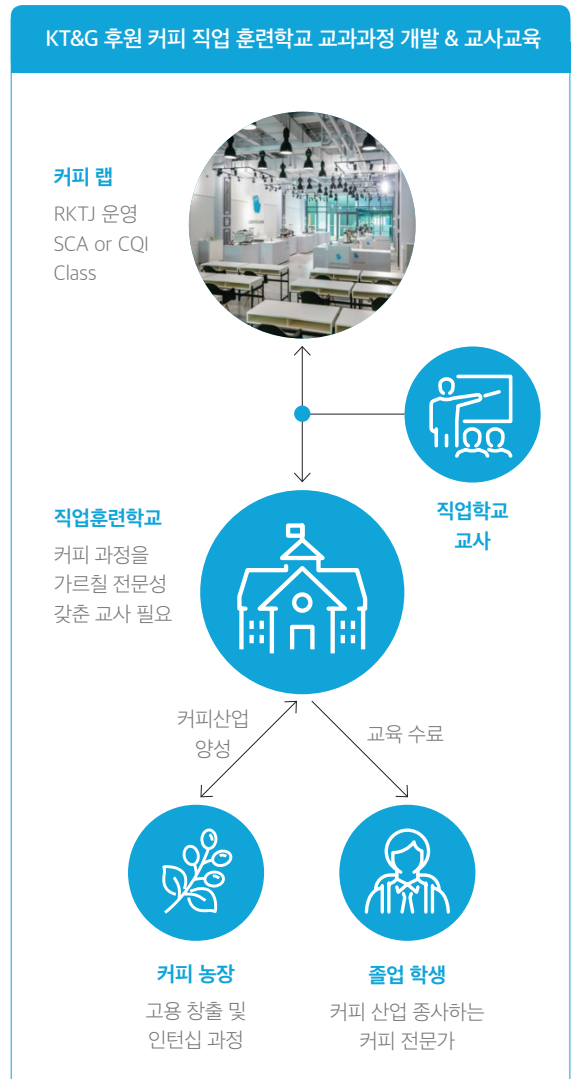
를 즐기면서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실무자 미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커피 교육, 첫 걸음의 시작

프렌즈가 다녀온 이후, 드디어 커피 랩이 완공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커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실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업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제일 먼저 진행된 코스는 SCA 센서리(Sensory) 과정입니다. 커피의 향과 맛에 대한 감별능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인데요, 커피콩의 냄새를 맡고, 커피의 맛을 보면서 보다 퀄리티 높은 커피를 감별하고 추출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그 외에도 로스팅(Roasting), 생두(Green Bean) 과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커피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 꼭 필요한 과정이지요!



1. 인도네시아 매체에 게재된 MOU기사 2. 커피 실습 기계들 3. 커피 랩에서 진행한 SCA 센서리수업



훌륭한 커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커피콩이 생산되는 농장 및 실습장이 있어야 하고, 커피 전문가 과정을 가르칠 강사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커리큘럼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인도네시아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데요, 이제 부족했던 다른 부분들이 채워질 차례입니다. 커피랩에서 커피 전문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수업이 이제 시작됐고, SCA 과정을 토대로 직업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해 온 커리큘럼 또한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커피 전문가가 되어 인도네시아 커피 산업을 발전시키고 인도네시아 청년들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강동구립길리청소년지역아동센터 어벤져스 3인과 함께

지난 11월 19일, 프렌즈가 강동구청으로부터 위탁운영을 맡게 된 '구립길리청소년지역아동센터(이하 길리)'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손님과 축하 인사로 북적였던 현장을 찾아가, 이곳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세 분의 선생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이은영
센터장

김보람
사회복지사

이연경
사회복지사

안녕하세요, 길리의 어벤져스! 만나서 반갑습니다~ 프렌즈 후원자분들께 각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연경 저는 이연경 사회복지사이고요, 그동안 재정업무를 비롯해 장애인, 여성, 노숙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가장 만나고 싶었던 것이 청소년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안내자가 되고 싶습니다.

보람 반갑습니다~ 김보람 사회복지사입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공부했는데요, 강동구의 두 번째 구립지역아동센터인 이곳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아! 물론, 프렌즈와도 함께 하게 되어서 더 영광이죠^^

센터장 안녕하세요~ 저는 훌륭한 연경, 보람 선생님과 함께

길리의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된 이은영 센터장입니다. 어깨는 무겁지만, 마음은 매우 설레고 즐겁네요!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네요! 그동안 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보람 있는 일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센터장 아무래도 아이들과의 기억이 많이 남아요. 아동들이 성장하면 센터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어 스승의 날에 꽃과 커피를 사 오고, 센터 동생들을 위해 본인의 용돈을 털어 아이스크림을 사 온 거예요. '어리기만 했던 아이가 멋진 청소년으로 성장했구나~ 이런 맛에 일하는 거지!'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연경 저는 한부모 가정이면서 어머니가 중국 분이었던 아동

이 생각나네요. 이 아이가 센터에서 수학은 친구들보다 훨씬 잘하는 똑똑한 아이였는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말도 안 하고 책만 읽는 조용한 아이였거든요. 아동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알고 난 후 센터에서 1년간 후원을 연결해줬는데, 이후 어머니가 아이를 더 따뜻하게 품게 되고, 아이 또한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더 받게 되면서 밝아졌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장난도 치며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포근해 지는데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길리에서도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길리가 개소식을 하게 됐는데요, 어벤져스의 막내, 보람 선생님의 소감은 어떠신가요?

보람 아하하. 막내에게 이런 중요한 질문을 주시다니요! 사실, 요즘 길을 걸어갈 때 중학생 아이들이 지나가면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가고,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스치듯 마주치는 아이들이 언젠가 저희 길리에 다니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강동구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강동구민으로서, 강동 청소년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어 더 기대되고 설레요! 어서 우리 길리가 아이들로 북적였다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만들어 나갈 길리의 모습

들의 보살핌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긍정적인 모습의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람 맞아요. 저희 길리가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와 다르게, 청소년도 올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돌봄과 보호를 넘어, 찾아오는 친구들 한명 한명에 딱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센터 운영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프렌즈와 함께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 같아요.

길리에서 세 분은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나요?

센터장 저는 길리의 총괄적인 관리와 지역사회연계, 민·관·학 협력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곳에 오는 아이들, 보호자와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경 저는 고학년 친구들을 주로 담당할 것 같고요, 학생들과 부모님을 상담하고 보호, 문화, 교육, 특화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고학년 친구들을 모집하는 중이라, 지금은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과 1:1로 EBS방송과 독서 지도를 하며 학습을 돕고 있습니다. 고학년 친구들~ 어서 오세요~~!

보람 저는 예비 중학생이 되는 6학년 아이들의 교육프로그램(교과목 학습)과 정서지원프로그램(집단상담 등)을 집중적으로 담당할 예정이에요. 그 외에 길리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센터장님과 연경 선생님을 도와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고요.



개소식에 참여한 내빈들의 모습

아이들을 예뻐하는 보람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오게 될 길리는 어떤 곳인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센터장 길리는 아이들의 전인격적인 발달과 성장을 돕고, 누구나 소외됨 없이 자기 의견을 잘 말할 수 있게 귀 기울여주는 곳이에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아이들의 내면이 저희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아이들이 학습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길리가 이런 곳이 되면 좋겠다! 라는 기대나 비전이 있다면요? **연경 선생님~**
연경 앗. 어려운 질문에 답을 하려니 떨려요. 저는 우리 길리가 강동구에서 대표적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곳에 온 아이들에게 가장 같은 곳이 되어 주고 싶고, 수탁법인인 프렌즈가 국제NGO인 만큼! 지역 사회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오~ 세계를 품는 어마어마한 곳이 되겠는데요! 다른 두 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보람 길리에 온 아이들이 충분히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찾고, 진로를 고민하며 멋진 미래를 만들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다닌다고 하면, 애매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은데, 길리는 그런 위축감 없이,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센터가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센터장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훌륭히 말씀하셔서 저는 간단히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 또한, 길리가 아이들이 즐겁게 이용하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이들이 우울 안 개구리로 살지 않고 더 넓은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

가는 삶의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아이 한 명의 성장을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요. 길리가 그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멋진 비전을 갖고 센터가 더욱 성장하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센터에서 앞으로 만나게 될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 애들아, 요즘 고민이 많지? 걱정하지 마,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어! 너를 사랑해 주는 든든한 우리가 있잖아. 항상 기억하렴. 네가 제일 소중한고, 또 네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한단다. 그것을 우리는 서로 지켜주어야 해!

연경 너희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단다. 이곳에서 너희들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함께 보내면서 꿈을 찾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가 될게. 항상 응원하고 사랑한다.

보람 너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존중할게! 길리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희망과 꿈을 키우고, 밝은 미래를 그려나가자.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게!



'구립길리청소년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개인학습실, 다목적교실, 프로그램실, 식당 등의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개개인에게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생활지도, 학습지도)과 체험활동(문화체험, 특기적성개발)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주소: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14길, 38 / 2층
- 문의: 02-483-1318

길리로 오세요~!



안드레아스를 위하여 '그 후'

2019년 상반기 '만만한세상'에서 소개된 안드레아스가 드디어! 특수 안경을 통해 예쁜 눈을 선물 받았습니다. 유독 긴 기다림의 연속이었던 안드레아스의 여정. 그래서 더욱 그 결과가 감사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드레아스의 소식을 기다리고 계셨던 후원자분들을 위해, 안드레아스와 함께한 긴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4년 1차 수술 (프렌즈와 만나기 전)

- 5살 때 오른쪽 눈에 안구암 발병. 안구 제거 수술을 받음.
- 병원이 없는 숨바섬의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수술 후 관리와 추가 검사를 받지 못함. 안구를 제거한 오른쪽 눈에서 수시로 고름과 진물이 흘러나오고 통증에 시달리는 등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웠지만, 친구들의 놀림을 받아 더 속상했던 안드레아스.

2018년 2차 수술 (프렌즈와 첫 만남)

- 2018년 함춘환 현지활동가가 프렌즈에 긴급지원 신청. 다니엘기도회 사랑의헌금 대상자로 추천되어 선정됨.
- 숨바섬에서 발리로 나와 검사 진행. 검사 결과 1차 수술 이후에도 오른쪽 눈에 여전히 악성종양이 남아있고 서두르지 않으면 왼쪽 눈까지 잃을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2차 긴급 수술 진행. 양쪽 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적처럼 왼쪽 눈을 보존하게 됨.
- 안구가 제거된 오른쪽 눈에 의안을 삽입하는 것을 함께 시도했으나 긴 시간 상처가 방치되고 함몰되어 실패함.
- 의안 삽입 실패에 따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현지 활동가, 프렌즈 직원들은 슬퍼했으나 도리어 안드레아스와 부모님은 2차 수술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함.

2019년 3~4월 의안 삽입수술을 위한 "만만한 세상"과 후속 모금 진행

- 2차 수술을 통해 악성종양은 제거되었고 더 이상 고름이나 진물은 나오지 않게 되었으나 함몰된 눈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을 받고 위축되는 안드레아스를 위해 의안 제작과 삽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 프렌즈 후원행사인 '만만한세상'을 통해 안드레아스의 이야기를 알리고 모금 진행.
- '왕가의아이들-전통술놀이학원'에서도 아이들이 주도한 바자회를 통해 후원금을 마련하고 안드레아스에게 그림편지를 써서 응원의 마음을 전달함.

2019년 4월~9월

(숨바 & 발리)
의안 삽입을 위한
간절한 두드림

- 전문 기관을 통해 의안 제작과 후원을 약속받았으나, 함몰된 부위가 깊어 성형수술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구 삽입이 불가능한 상황.
- 발리의 여러 병원에 여러 차례 타진하였으나, 현지의 의료기술로는 진행이 불가능하여 보류하고 다시 숨바로 돌아감.
- 재추진 계획이 세워졌으나 출발 직전 할아버지 사망과 장례 일정으로 다시 취소



검사를 위해 발리에 방문한 안드레아스



병원에서 검사받고 있는 중

2019년 10월

(숨바 & 발리 & 자카르타)
자카르타 병원들을
돌아다니다

- 사전 의뢰로 자카르타병원에서 다시 안구 삽입 가능 여부를 타진.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보기 위하여 자카르타로 출발
- 자카르타의 대형 병원 5곳에서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여전히 수술이 어려운 상태. 무리한 안구 삽입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신경 손상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인공 안구 삽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함.
- 마지막 병원에서 특수 안경을 제작하는 의안 제작소를 소개.

2019년 10월

특수안경 제작

- 의안 제작소 방문. 피부 안으로 의안을 삽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삽입 없이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특수 안경 제작을 제안받음.
* 특수안경 : 안구 모양과 눈두덩이 모양을 실리콘으로 실제와 가깝게 제작하고 안경 한쪽에 부착하여 앞에서 봤을 때 함몰된 눈이 티가 나지 않게 제작한 안경
- 안드레아스에게 맞는 특수 안경이 제작되기까지 자카르타에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제작 진행. 20일 동안 15회 이상 제작소 방문 끝에 안드레아스의 왼쪽 눈에 최대한 가까운 형태의 특수안경 제작에 성공.



아빠와 자카르타에 온 안드레아스



의안제작을 위한 검사



특수안경 제작 중

2018년 시작된 안드레아스를 위한 여정이 끝을 맺기까지 거의 1년의 시간이 걸렸네요. 안드레아스가 특수안경을 쓰게 된 날, 안드레아스와 부모님은 감사인사를 전하며 펄펄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후 함춘환 현지활동가가 숨바섬을 방문할 때마다 보내오는 안드레아스 사진을 보며 저희들은 감탄에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당당함을 되찾은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고 있고, 같은 아이가 만나 싶을 정도로 꽃미모(?)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2차 수술이 병의 악화를 막고, 남은 왼쪽 눈을 지키는데 중요한 치료가 되었다면, 안드레아스가 받은 특수 안경 제작은 오랜 기간 응어리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한 아이의 인생과 가정이 상상하지 못했던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자기처럼 울고 있는 또 다른 아이를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훌륭한 어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동안 안드레아스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드레아스야, 너 정말 멋져!”



안드레아스 가족과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함께 한 함춘환 현지활동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걸음 <연세84 '1m×1원'>



걷기 기부 1m×1원, 라오스를 품다

“1m에 1원씩 1년을 모았더니 산골학교에 통학차량을 후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연세84 1m×1원’(이하 ‘1m1원’) 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박민정입니다. 프렌즈에 뜻깊은 후원을 하게 된 것도 기쁘는데, 저희 모임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셔서 고맙습니다.

‘1m1원’은 1984년에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의 모임입니다. 연대 졸업생들은 학교로부터 초대받아 하루 동안 홈커밍데이를 즐기는데, 저희 또한 졸업한 지 25년이 되던 2013년에 축제 같았던 홈커밍데이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발적으로 다양한 소모임을 만들어 모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걷기를 통해 기부를 하고자 모인 ‘1m1원’입니다. 이름처럼 ‘1m 걸을 때마다 1원씩 적립하기’가 이 모임의 기본 원칙입니다.

저희 모임은 다른 모임처럼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정기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대신 각자가 걸은 걸음의 거리를 SNS 모임방 개인기록장에 올리고, 걸었던 길 중 인상 깊은 곳이나 추천할 만한 코스가 있다면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SNS 소식에 올리는 일을 꾸준히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다 걷기와 기부를 연결하기 시작한 것이 2019년 2월입니다. 그리고 보니 ‘1m1원’은 아직 돌도 안 된 햇병

아리 모임이네요. 그렇지만 걷기만큼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걷기로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보겠다는 열정만큼은 뜨거운 모임입니다.

회원들은 각자 핸드폰 안에 탑재되어 있는 트래커를 이용해 자동 측정된 하루 동안의 운동량을 기록하고, 그 거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기부금 통장에 적립합니다. 숲 산책을 좋아하는 친구, 서울 둘레길을 꾸준히 걷는 친구, 등산을 주로 하는 친구 등 각자 자신이 즐기는 방법대로 걷기를 실천하고, 걸은 만큼의 거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스스로 계산해 통장에 적립하자는 약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조금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마라톤이나 수영으로 적립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2월부터 11월 말까지 140km를 넘게 걷고 1,429,740원을 적립한 친구가 있어, 모두 깜짝 놀라며 부러움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2019년 10개월 동안 300~600km 정도씩 걸어 30만원에서 60만원씩 개인 기부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번 달에는 내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걸었는지 가늠할 수 있고, 다음 달에 걷고자 하는 목표 거리도 정할 수 있으니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단이 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게다가 친구의 기록들을 보며 긍정적인 자극도 받을 수 있어 좋고, 모은 돈을 선한 곳에 기부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걷기가 더욱 즐거웠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3보면 승차’라는 말이 딱 어울릴 만큼 걷기와는 아주 거리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난 후에야 걷기가 생활화되기 시작했어요. 기부금을 모으겠다는 목표가 생기니 운동을 꾸준히 하는 효과가 덩어로 생기더라는 친구들의 이야기에 모두가 흐뭇해했던 기억도 나네요. 후원금을 더 모으기 위해 깜짝이벤트처럼 진행한 온라인 경매도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되었어요.

11월말 가진 2019년 정기모임에서 열 달 동안 모은 걷기 기록과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흘려보낼지 의논했는데, 각자 걸은 거리도 다르고, 모인 적립금도 다르지만 최소 한 달에 10km는 걸은 것으로 가정하고, 각자 모은 금액에서 10만원씩은 따로 떼어 공동기부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스스로 후원할 곳을 알아보고 선택한 곳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공동기부금을 후원할 곳도 친구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각자 미리 알아보고 회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SNS에서 추천받은 8곳의 기부처를 소개하고 열흘 정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은 뒤 투표를 했는데, 그때 선택된 기부처가 프렌즈였습니다. 라오스 북부 산악지역인 우뚝사이의 ‘프린팅 학교’에 통학차량을 지원하는 제안이었는데, 아무래도 걷기를 통해 모은 후원금이구나 보니, 라오스 아이들의 안전한 ‘걸음’이 되어줄 통학 차량을 구입한다는 점에 많은 호응을 얻은 것 같습니다.

라오스 프린팅 학교의 학생들은 5세~17세까지로 주로 부모님이 화전을 하러 가면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점심을 먹거나 굶는 가난한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길이 험한 산골이지만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를 오게 되면 한 끼라도 식사를 할 수 있어 학교에 오고 싶어 한다는 라오스 산골 마을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 통학차량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우리들이 열 달 동안 걸으면서 모은 기부금을 쓰기로 결정한 날! 하루 종일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일 있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굶지 않기 위해 학교를 찾아온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어두운 표정에 웃지 않던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웃는 아이로 변화해가는 모습도 상상해 보고요. 더 이상은 학교 오는데 지치고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도 담아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걸음, 그 걸음이 새해에 선물해줄 또 다른 선한 일을 꿈꾸며 더욱 열심히 걸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이 따뜻한 걸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걷지 않으시겠어요?



프렌즈는 ‘연세84 1m×1원’의 걷기 기부를 시작으로 다양한 모임과 동호회의 걷기 기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렌즈 홈페이지와 네이버 해피빈을

참고해 주세요. 단체가 아닌 개인이나 가족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라오스 프린팅학교 통학차량 지원 이후 모인 후원금은 아프리카 차드 어린이들을 위한 통학 자전거 지원에 사용되며 목표 금액이 달성된 이후에는 다른 국가 어린이들을 위한 통학자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후원문의 : 사단법인 프렌즈 02-483-5007)

핸즈온 뉴스

프렌즈 핸즈온, 개인 참여는 물론, 기업사회공헌 등 다양한 활동으로 연계 가능해

- 삼성카드 '아지냥이 가방' 키트 제작!



올해 프렌즈 핸즈온은 기업사회공헌의 일환으로 활동 중인 삼성카드사회봉사단과 연계하여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200여 명의 삼성카드 임직원들이 프렌즈의 핸즈온 키트인 동물 필통 만들기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삼성카드 반려동물 앱 캐릭터인 '아지냥이'를 활용한 가방 키트를 개발하고 직접 만들기에 도전하였습니다. 가방의 몸체부터 아지냥이의 눈, 코, 입 세밀한 부분까지 바느질해야 하는 고난도의 활동이었지만~ 베테랑 솜씨로 모두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완성된 가방은 아이티 오나빌의 아동들을 위해 후원되었습니다.

프렌즈 핸즈온은 기업 사회공헌활동뿐 아니라, 의미 있는 동호회·동아리 활동, 개인 취미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프렌즈 핸즈온에 도전해보세요~!

- 키트 문의/신청 : 02-483-5007
- 후원계좌 : 국민 777501-04-134033 (사단법인 프렌즈)

2019 프렌즈 핸즈온 활동이 시작된 후, 그와 관련된 이모저모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프렌즈 필통 선물을 받은 첫 번째 나라는 인도



“내가 만든 필통이 과연 아이들에게 전달됐을까?” 궁금하셨죠?! 봉사자분들이 예쁘게 만들어주신 프렌즈 필통이 지난 10월, 프렌즈 봉사단을 통해 인도 람강가 지역 아동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봉사단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선물로 전해졌는데요~ 아이들의 신나고 밝은 미소가 여러분께도 보이시나요? 봉사자에게는 보람을, 아이들에게는 행복한 에너지를 전하는 핸즈온 활동~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핸즈온을 통해 차드 어린이들을 위한 통학 자전거를 지원합니다!



2019년은 프렌즈에서 처음으로 핸즈온 활동이 시작된 첫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곰돌이와 바둑이 필통 키트를 후원해 주시고 만들어주셨는데요, 2019년 한해 모인 소중한 키트 후원금으로 아프리카 차드 친구들의 통학 자전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뜨거운 더위 속에 먼 거리를 걸어 다녀야 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자전거 차드에서 들려올 기쁜 소식은 다음 호에 자세히 실을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2019 프렌즈 하반기 News

프렌즈봉사단



프렌즈봉사단이 2019년 한 해 동안 변함없이 지구촌 곳곳에서 가슴 따뜻한 활동을 펼치고 좋은 친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귀한 활동을 위해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오지와 의료사각지대에서 구슬땀을 흘려주신 모든 봉사단원께 감사드립니다. 프렌즈는 봉사단과 연계하여 단기 활동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환우들을 위한 긴급지원과 학교 건축 등 교육사업으로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 솜바 : 2019.7.21~28 / 62명 참가 / 의료, 어린이 교육, 문화교류
- 터키 산리우르파 : 2019.8.10~18 / 25명 참가 / 시리아 난민 의료지원, 우정 방문
- 인도 콜카타 : 2019.9.8~14 / 35명 참가 / 의료, 어린이 교육
- 인도 람강가 : 2019.7.28~8.4 / 47명 참가 / 의료, 어린이 교육, 문화교류, 제빵

- 우즈베키스탄 누쿠스 : 2019.9.11~19 / 41명 참가 / 의료, 구강 보건교육, 어린이 교육

사무실 이전



2019년 9월 30일, 프렌즈가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하였습니다! 조금 더 넓어진 사무실에는 여러 공간이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고, 현지 활동가, 후원자, 봉사자 등 다양한 손님을 따뜻이 맞이할 수 있는 회의실 겸 작은 카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후원 물품을 보관할 장소도 충분히 확보해 두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노크해 주세요. 새로운 사무실에서 더 크게 도약하는 프렌즈가 되겠습니다.

- 새주소: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89, 금성빌딩 2층
- 오시는 길: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4번 출구 도보 6분 거리(둔촌역 청구아파트 맞은편)

온라인 모금 플랫폼 시작! (해피빈, 카카오 같이가치)



일상 속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좋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프렌즈가 '해피빈'과 '카카오 같이가치'에서 온라인모금 활동이 가능한 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국내외 지구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캠페인과 온라인모금, 클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네티즌과 함께 더 많은 이웃들을 돕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키워나갈 것입니다.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천 NPO 법률컨설팅



프렌즈는 재단법인 동천 NPO 법 센터가 제공하는 무료법률컨설팅의 대

상 단체로 선정되어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공익단체가 운영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업은 2019년 프렌즈를 포함해 총 5개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프렌즈를 방문해 아낌없는 자문을 주신 김홍을, 이탁건, 정순문 변호사님과 재단법인 동천에 감사드리며 2020년 동천의 협력으로 프렌즈와 함께 하실 무료법률 자문 변호사님의 활동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더 투명하고 올바르게 운영하는 프렌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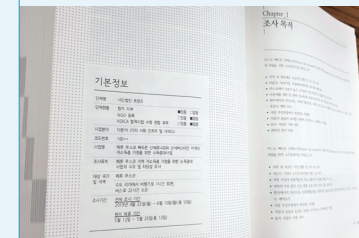
사랑의 헌금으로 긴급의료비 지원



해마다 이웃을 위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다니엘기도회 사랑의헌금 지정 후원을 받아 국내의 긴급환자 7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인도네시아 솜바섬에서 살고 있는 메리인과 마리아를 비롯하여 뇌경색, 간암 등 각종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소중한 후원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중 메리인은 2020년 3월 서울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의 협력을 받아 한국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며, 수술

후 회복기간까지 약 2~3개월동안 한국에서 체류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여러 환우와 가족분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치료에 집중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헌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9 현지지역조사 결과보고집 및 NGO 길라잡이 발간



프렌즈가 참여한 2019년 코이카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일환으로 '현지지역조사 결과보고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보고집에는 프렌즈가 참여한 육성 트랙 16개 기관과 파트너십 트랙 6개 기관의 지역조사 결과보고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일 프로그램의 스터디투어를 통해 발간되는 'NGO길라잡이-페루편'이 최종 집필을 마무리하고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지지역조사에는 이정민 사무국장과 김희정 사업팀 과장이 참여하였고, 스터디투어에는 김희정 과장이 참여하여 NGO 길라잡이 집필진으로도 활동하였습니다. 발간될 NGO 길라잡이를 통해 프렌즈와 페루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지 활동가들의 프렌즈 방문

2019년 한 해 동안 해외사업장에서 협력하며 수고하고 계시는 현지 활동가분들이 프렌즈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겪는 희로애락의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하는 모습을 통해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도 소중한 현지 활동가분들과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하는 프렌즈가 되겠습니다! 귀한 활동과 소중한 나눔 항상 감사합니다!

[방문하신 분들]

제럴드, 신상희, 함춘환(인도네시아), 유동윤(페루), 권주루(세네갈), 손원석, 장소영(네팔), 김상도, 정연숙(탄자니아) 김광한, 서이석, 육대주(미얀마), 이명재, 박숙영(케냐), 샤샤, 정소연(스리랑카), 강은규(캄보디아), 강동효, 남하얀(아이티) 김계웅, 지구보기, 이정미(인도), 공영훈, 안길수(중국), 김혜정(차드)

지구촌에 희망을 주는

좋은친구 FRIENDS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189 금성빌딩 2층

Tel 02-483-5007 Fax 02-6007-9857

E-mail friends@hifriends.or.kr Homepage www.hifriends.or.kr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사단법인 프렌즈

후원계좌번호 국민은행 777501-04-111940, 신한은행 100-023-015009